

# 강진군, 마량놀토수산물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강진군은 지난 26일 2023년 제7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22년 놀토수산물시장 결산 및 2023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논의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사장 내 판매부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전망대 카페 정비와 포토존을 조성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더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용구 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장은 “마량놀

## 2023년 마량놀토수산물시장 성공 개최 위한 관계자 협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전망대 카페 정비·포토존 조성 등

토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군과 상인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놀토수산물시장을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질 좋은 서비스와 함께 다시 찾고 싶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5월 처음 문을 열었다. 2019년까지 연평균 18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액 90억 원(연평균 1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2년간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5월 7일 재개장해 10월 29일까지 총 26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토요일약회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소 역할을 했다.

올 한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에는 5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총 4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015년 큰 기대 속에 개장한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가장 신선한 수산물로 가장 저렴하게 즐기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 신뢰를 쌓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며,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꾸며질 내년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강진군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관계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코로나 19로 잠시 침체됐던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 발판...국책사업 유치

난대수목원·해양수산박물관 조성 등

완도군이 해양, 문화, 역사 등 고유문화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해양관광 거점도시 완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3456ha)를 차지하며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비 1475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현 완도수목원 일대에 조성된다.

국립난대수목원에는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전지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과 모노레일 등이 들어선다.

지난 27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조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정바다를 보유한 완도군에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도 들어선다.

해양수산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인근 4만3000㎡ 부지에 국비 1245억 원을 투입해 전시, 연구, 교육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법화사지 복원 재건 등 '장보고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고급 덕동리 일원에 삼도수궁 통제영·봉수대 복원, 역사 공원길 등을 조성하는 '이순신 장군 역사 공원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주민 주도형 '섬 관광청'을 운영하고 '완도 섬 비엔날레'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건설'과 '다도해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체도권은 체험관광, 동부권은 힐링관광, 서부권은 문화관광, 청산권은 생태관광으로 권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비교우위의 해양·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500만 관광객이 찾는 완도를 만들 것이다”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완도군이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해님이·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19 재유행과 안전 사고 예방 위해

진도군이 연말연시에 예정된 해님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올해 12월 31일 지산면 세방나조 전망대에서 개최 예정인 해님이 행사와 내년 1월 1

일 진도타워, 가계해변, 침철산, 조도등대 등 5개소에서 개최 예정이던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재유행 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외부인 방문이 많은 해님이와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으며, 현장에 안전 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기자

## 장흥군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첫 단추 끼워”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확보

장흥군이 '국립 전남호국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24일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전남호국원' 용역비가 포함되면서 장흥군이 전남호국원 유치전에서 한 발 앞서게 된 것이다.

전남호국원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490억 원 규모의 전역 국비 사업이다.

전북 임실호국원이 오는 2024년 만장됨에 따라, 전남 지역에 새로운 국립묘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전남호국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장흥군은 전남호국원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라남도과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김승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조를 맞춰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 반영을 성사시켰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은 내년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호국원 유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립호국원 유치를 확정 지은 강원도의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광주·전남 모든 시군에서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을 찾는 유동인구의 수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해남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박차

주민설명회 개최...2024년 조성 완료 목표 승인 절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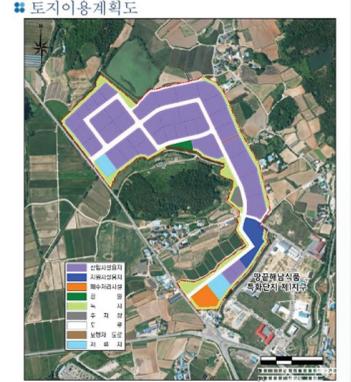
해남군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2지구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해남군은 식품특화단지 제1지구가 100% 분양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제2지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산면 주민들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설명이 이뤄졌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사업은 해남군 마산면 상동리·용전리 일원 약 21만 8,000㎡(6만6,150평) 면적에 202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